

## 기독교 대학 신입생들의 필수 신앙 교과목에 대한 수업 적응도 분석

고우련 (University of Eastern Finland)

이은실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요약

기독교대학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기독교인의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신앙 필수 교과목 이수율에 따라 발생하는 학습 흥미 및 동기 수준 차이에 주목하도록 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특별히 이탈의 가능성이 높은 1학년 교육 과정에 신앙 필수 교과 이수가 집중된 신입생들의 수업 적응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생들의 필수 신앙 수업 부적응 요인은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였으며, 수업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이유로 불충분한 배경지식과 학습량을 꼽았다. 둘째, 신앙 수업 적응 요인은 학습환경 수용, 수업의 필요와 의미 인식, 그리고 학습 능력 인식으로 드러났다. 셋째, 수업 적응 요인과 실제 학점은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 넷째, 학생 스스로 적응 수준을 인식하여 학습에 적용하도록 희망 학생에게 배부된 피드백은 기독교인 학생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전체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은 통계적으로 피드백 수령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수업 부적응, 적응 수준 그리고 실제학점은 기독교인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필수 신앙 수업을 수강하는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하여 기독교인 여부에 따라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수업 적응과 같은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물리적, 인지적 차원의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기독교 대학, 신입생, 신앙 필수 교과, 수업 적응과 학업성취

### I 들어가면서

대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에서부터 강의실에 걸쳐 보유한 기능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 질 관리 (Total Quality Management, TQM)를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Holmes · Mcelwee, 1995; Salem et al., 2018). 그 중, 교육의 질 관리는 학생들이 대학 교육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각 대학이 내세우는 교육 목표에 가장 부합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첫 1년이 남은 대학 생활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First-year Student Engagement in College"를 내세우며, 대학들은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De Clercq et al., 2018; Conley et al., 2013; 김수연, 2012). 대학 생활 적응이란 학업, 대인관계와 같이 전반적인 대학 생활에

서 발생하는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의미하며, 특별히 대학이 요구하는 다양한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는가를 나타내는 학업 적응은 이 개념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Baker & Siryk, 1984). 최근에는 이하은 외 (2016)가 학업 적응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별 수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업 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한편, 기독교 세계관 위에서 학문과 현실을 바라보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기독교 대학들은 지원자의 종교 여부와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신앙 교과목 수업들을 기초 필수 교양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혜림, 2015). 하지만 이러한 수업이 주로 1학년 교과 과정에 집중된 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은 종교 수업에서 기인한 중도 탈락을 지양하고 전반적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의 수업 적응과 학업 성취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별 교과목 차원에서 신앙 필수 교과 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더 나아가 대학 교양 교육 과정 평가 기준에 포함된 '교과목 구성의 대학 설립 이념과의 일치성'에 따라, 기독교 대학이 교육을 통해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데에도 꼭 필요하다 (박혜림,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학문적 탁월성과 전인교육을 추구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H 기독교 대학을 사례로 하여, 신앙 필수 수업에서의 신입생 적응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히 이 수업 적응 연구는 학업에 잘 적응하였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학업 성취 정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수업 적응이 신입생들의 학업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수업 적응 정도를 학생 스스로가 인식하는 것이 학업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두 가지 연구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습의 내재적 동기의 측면으로 신앙 수업 적응과 학업 성취의 관계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수업적응과 학업성취

수업 적응이란 대학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학업과는 달리, 일정한 환경 및 방법과 체계적인 수업 구조 내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응을 의미한다 (오종현 외 2017). 이것은 심리적 요인, 외부 상황, 수업의 형태와 환경, 관계적 요인, 시기적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다 (곽수란, 2012). 그러므로 수업 적응 행동이란 학습자가 수업 상황에서 a) 발생하는 일들을 바르게 수용하고, b) 집중을 방해하는 내외적 요인들을 조절하며, c)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며, d)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원재순·김진숙, 2016). 요약하면, 학생의 관점에서 자신의 학업을 위해 대학이 제공하는 수업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수업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이 더욱 성공적인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업 적응은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다

큰 교육 기관보다 특별히 대학에서 이러한 영향이 더 잘 드러나는 이유는 학생 스스로가 적성 그리고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을 선택하는 권한 때문이다 (이하은 외 2016). 하지만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요구하는 필수 과목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 수준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김정호 외 2017). 즉, 필수 과목에서는 학생들은 수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율성과 내재적 동기 수준을 가지므로 수업에 첫 발을 내딛을 때 거부감이 더 클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고 학업을 잘 해내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조건이 존재하는 대학 필수 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업 적응이 과연 학업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 2. 기독교 대학의 필수 신앙 수업

34개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한 기독교 대학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한 박혜림 (2015)의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 대학들은 기독교 정신이 반영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와 관련한 교양 및 전공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지정된 몇몇의 필수 과목을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필수 교양으로 가장 많이 개설된 과목은 '성경의 이해'로, 이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학업 수행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제공되고 있다 (한윤식, 2003). 하지만 기독교 대학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기독교인의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모든 학생에게 부여된 필수 신앙 교과 이수가 종교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학습 흥미 및 내적 동기 수준 차이에 주목하도록 한다 (김선정 외 2008). 이에 더하여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신입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의무가 있으며, 중등교육에서 경험하지 못한 상당한 자유와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학업을 주체적으로 수행해내야 한다 (이하은 외 2016). 그러므로 특별히 중도탈락 및 이탈의 가능성이 높은 1학년 교육 과정에 신앙 필수 교과 이수가 집중된 기독교 대학에서 신입생들의 수업 적응 정도를 검토하고 이들이 대학 교육에 잘 적응하도록 도울 지원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 Ⅲ 연구 방법

### 1. 사례 선정 이유

#### (1) 대학 학습활동 질 관리 체계

H 기독교 대학에서 학습 활동 질관리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는 SPARC 시스템은 총 5가지 요소 (Study, Participation, Activity, Realization, Change)가 연계되어 순환하는 '환류 체계'이며 (그림 1, 한동대학교, 2016), 이 체계 내의 적응은 '학교 적응'과 같은 넓은 의미라기보다 '개별 수업 단위'에 국한된다 (한동대학교, 2019). 즉, 학습자가 강의 및 과제와 관련한

상황들을 수용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보다 세부적인 의미를 갖는다.

(2) 수업 적응 도구 개발

H 대학에서 수업 적응도 설문은 총 2가지로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문항으로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1차 설문은 수업에서 제공 받은 자원에 대한 적응 정도를 (학기 4-5주차 시행), 2차 설문은 수업 관련 세부 요인에 대한 적응 정도를 (학기 11-12주차 시행) 측정한다. 설문 후, 피드백은 학생 전체의 적응 정도에 관하여 교수자에게,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과 적응 정도를 비교하여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된다. 즉,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뿐 아니라 교수자의 수업 개선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표1> 수업적응도 설문 개발 및 활용 현황 (2015-2017년)

년도	설명	문제점 및 개선사항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생활 적응 척도 중<sup>2)</sup>학업 적응<sup>1)</sup>사용</li> <li>• 총 24문항 중 7문항 &amp; 주관식 1문항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세부적인 적응 의미 추가 → 수업 적응도 설문 추가 개발 (2차 설문)</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 2회 실시</li> <li>• 1차 설문 타당도 보완: 문항 개선</li> <li>→ 수정: 난이도 문항을 과제와 수업 전반으로 분리</li> <li>→ 추가: 수업 적응을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li> <li>→ 삭제: 수업 적응을 위해 수업 시간 이외에 사용하는 시간의 양이 얼마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 결과 및 의견이 반영 여부 알 수 없음 → 설문 참여도 낮음</li> <li>• 설문 후 결과 확인 피드백 개발</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 후, 교수 및 희망 학생에게 피드백 전달</li> </ul>	-



[그림1] 기존 SPARC(좌)와 설문 개발로 개선된 SPACR 체계도(우)

(3) 신앙 과목 중요성

H 대학은 개교 당시,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기독교적 정체성을 저버리지

1) 학습자들이 여러 교육적 여건을 자신에게 맞게 변화시키고 그것을 바르게 수용하는 것 (김용래, 2000).  
 2) 대학 생활 적응 척도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한동대학교, 2016에서 재인용; Baker & Siryk, 1984; 현진원, 1992 번안; 김지연, 2015 수정)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이 말하는 학문적 탁월성을 이룩해야 할지를 심사숙고한 덕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독교 대학의 모델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한동대학교, 2011). 이 대학은 '기독교 정신, 학문적 탁월성, 세계 시민 소양, 그리고 훌륭한 기독교적 인성, 특별히 정직과 봉사의 희생정신을 겸비한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배출한다'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한동대학교, 2018),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중심 대학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한동대학교, 2014). 이를 위해 인성·영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채플 시간 이외에 신앙 과목을 필수/선택 교양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별히, 이러한 과목들은 무전공으로 입학한 1학년 교과 과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신입생들은 필수 신앙 교과 2-3개를 입학 첫 해에 수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2016-2018년) 신입생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동대학교, 2018), 신입생들의 99% 이상은 이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대학 선택의 주요 이유로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대학이라서 (1위)'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과 비전 때문에 (3위)'를 꼽았다. 그리고 '인성 및 신앙 교육 (1위)'을 가장 기대하는 학습 활동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입학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신앙 교과목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의 학습 기대가 어느 정도 대학의 교육 목표와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4) 비기독교 신입생 증가

H 대학은 대학 선택에 있어 학생들의 높은 능동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려는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2012년 이후 수시 입학 비율을 대폭 확대하였다 (한동대학교, 2019). 수시 비율을 확대한 초반에는 자발적으로 이 대학을 선택하는 비기독교인의 평균 비율이 8.95% (2012-2015년) 이었다. 하지만 전체 기독교 청년 수가 줄어들고 (김은혜, 2014) 전체 대학 입학 인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반상진 외 2013)에서 최근 3년간 비기독교 학생 입학 비율은 12.3%로 무려 3.35%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대학이 기독교 학교로써 종교 관련 수업이 의무라는 것을 학부모와 지원자가 모두 충분히 예상하도록 돕는 한편, 신앙 관련 수업을 듣는 기독교 그리고 비기독교 신입생들의 수업 적응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한다.

## 2. 연구대상

H 대학은 2018년 2학기에 채플을 제외하고 신앙관련 필수 혹은 선택 교과목으로 약 30개 과목을 개설하였다. 이 중, 총 6개의 필수 교과목을 수강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1차 338명, 2차 288명에게 수업적응도 설문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두 설문에 모두 참가한 206명 중, P/F가 아닌 Grade 형식으로 학점을 받은 148명의 응답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결측값 35명을 제외한 113명의 기독교인 여부를 포함한 최종 연구 대상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2 참고).

<표2> 수업 정보 및 설문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교수	강의명	언어	1학년인원(%)	설문응답인원(%)	기독교인 여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결측값
A	성경의 이해	한국어	27(13.1)	18(12.2)	12(11.8)	1(9.1)	5(14.3)
		한국어	32(15.5)	24(16.2)	19(18.6)	2(18.2)	3(8.6)
		한국어	50(24.3)	32(21.6)	27(26.5)	2(18.2)	3(8.6)
B	기독교의 이해	한국어	38(18.4)	31(20.9)	23(22.6)	5(45.4)	3(8.6)
		영어	16(7.8)	13(8.9)	8(7.8)	0(0.0)	5(14.3)
		영어	43(20.9)	30(20.2)	13(12.7)	1(9.1)	16(45.6)
총			206(100.0)	148(100.0)	102(100.0)	11(100.0)	35(100.0)

### 3. 연구 도구

우선 1차 설문은 주관식 3문항과 강의계획서, 과제 및 수업의 난이도 적응에 대한 객관식 6문항이 하위 요인 없이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2차 설문에는 1차와 다른 9문항을 총 5개의 하위 요인 (i.e., 학습 환경 수용 (3문항: 과제, 자료, 수업 방식 적용), 수업 필요와 의미 인식 (2문항: 수업 내용, 흥미 및 동기), 학습 능력에 대한 인식 (2문항: 과제 해결 및 지식 이해 정도)와 수업 참여도 (1문항)과 전반적 적응 정도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설문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으며, 영어가 더 편한 학생들에게는 영문 버전의 설문지가 제공되었다.

### 4.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교과목 담당 교수와 논의하여 데이터 수집을 승인 받은 후, 강의실 방문을 통해 설문 응답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9월 17일 ~ 9월 26일, 2차: 10월 29일 ~ 11월 9일). 이후 SPSS 23.0을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코딩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설문분석의 결과는 설문지에 추가로 작성된 주관식 응답 분석과 더불어 교수자에게 제공되었고, 설문결과 피드백을 희망한 개별 학생들에게는 개인과 동일과목 수강생의 적응 정도를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분석 방법의 경우, 데이터의 유형과 연구 문제에 따라 객관식 응답은 빈도, 교차, 상관, 평균비교 방법으로, 주관식 응답은 R 프로그램을 통하여 워드클라우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특별히,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된 수업 적응 요인과 실제 받은 학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학업 성취에 대한 수업 적응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 IV 연구 결과

## 1. 기초통계량

1차 설문 (문항별)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업에서 제공받은 자원에 대한 적응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서, 모든 문항에서 학생들은 보통 수준의 적응 정도를 보여주었으나 전반적인 수업의 난이도보다 ( $M = 1.89, SD = 1.02$ )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더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 $M = 3.68, SD = 1.26$ ). 2차 설문 (요인별)은 세부적인 수업 적응 요인들을 평가한 것으로서, 모든 요인에서 학생들은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두 설문의 공통 질문이었던 전반적 적응 경우, 1차에 비해서 2차에 0.19 ( $SD = .81$ ) 증가했으며, 대응 표본 검정 결과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t(147) = 2.838, p < .01$ ). 즉, 2차에 학생들의 적응 수준이 증가했다.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비기독교인 집단 ( $n=11$ )과 기독교인 집단의 전반적 적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로 검정한 결과, 기독교인 여부에 따른 전반적 적응은 1차와 2차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차이가 있었다 (1차  $U = 293.500, p < .01$ ; 2차  $U = 248.500, p < .01$ ).

<표3> 1차(문항별) 및 2차(요인별) 수업 적응도 기초 통계량

1차 설문 (문항별)		2차 설문 (요인별)		
내용	M(SD)	내용	M(SD)	신뢰도
강의계획서 (유용한 정도)*	3.17( .64)	학습 환경 수용	4.17( .60)	.737
강의 속도 (빠른 정도)	3.22( .48)	수업 필요와 의미 인식	4.07( .76)	.822
과제의 양 (많은 정도)	2.95( .42)	학습 능력에 대한 인식	3.87( .68)	.660
과제의 난이도 (어려운 정도)	3.68(1.26)	수업 참여 정도	3.26(1.15)	-
전반적 수업 난이도 (어려운 정도)	1.89(1.02)	전반적 적응 정도	4.05( .68)	-
전반적 적응 정도	3.86( .84)	-	-	-

Note. 2차 설문 요인 중, 수업 참여와 전반적 적응 정도는 1문항으로 구성된 하위 요인으로 신뢰도 분석이 불가능함.

\*해당 문항만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됨 (1 = 전혀 듣지 못함, 4 = 자세히 알고 있음)

## 2. 상관관계

### (1) 1차 설문: 부적응 요인

<표4>와 같이,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 (어려운 정도)는 전반적인 적응 정도와 가장 큰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수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수업에 더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차분석 결과, 유의수준 1%에서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들이 전반적으로 수업 난이도가 더 어렵다고 인식하였는데 ( $\chi^2(4) = 40.959, p < .01$ ), 이는 집단간 평균을 비교한 Mann-Whitney 비모수 검정 결과와도 일치한다 ( $U = 280.500, p < .01$ ). 결국, 수업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기독교인 학생들보다 수업에 더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

<표4> 1차 설문 문항 간 상관관계

	강의계획서	강의 속도	과제의 양	과제 난이도	수업 난이도	전반적 적응
강의계획서	1					
강의 속도	.098	1				
과제의 양	-.094	.027	1			
과제 난이도	-.270**	-.051	.018	1		
수업 난이도	.169*	-.245**	-.067	.016	1	
전반적 적응	.196*	-.246**	-.082	-.036	.594**	1

\*p < .05, \*\*p < .01

수업 난이도가 어렵다고 선택한 학생들 (<표5>의 1= 포기하고 싶음, 2=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포기할 정도는 아님, 3=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럭저럭 따라감, 이하 1-3)이 기독교 여부에 따라 수업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복수로 응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업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학생들은 '배운 바를 이해하기 전에 넘어가는 것' 과 '부족한 학습량'을 그 이유로 언급하였으나, '불충분한 배경지식의 양'은 기독교인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학생들의 수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였다.

<표5> 수업에 잘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이유	1			2			3			총
	기독교	비기독교	모름	기독교	비기독교	모름	기독교	비기독교	모름	
배경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	0	0	1	0	4	0	7	3	1	16
배운 바를 이해하기 전에 넘어가기 때문	0	0	0	1	0	0	6	0	0	8
학생에 대한 교수님의 기대가 높기 때문	0	0	0	0	0	0	1	0	0	1
수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부담스럽기 때문	0	0	0	0	0	1	2	0	0	3
수업이 영어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	0	0	0	0	1	0	4	0	2	7
공부하는 시간 (학습량)이 적기 때문	0	0	0	0	2	0	10	0	2	14
기타	0	0	0	0	1	2	1	0	1	5
이유 없음	1	0	0	0	0	0	0	0	0	1
총	2			13			40			55

Note. 1= 포기하고 싶음, 2=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포기할 정도는 아님, 3=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럭저럭 따라감

이를 위해, 학생들은 교수님들께서 강의해 주시는 내용을 어떻게 습득하고 학습할지 알려주는 것과 공부를 위해 필요한 PPT 및 추가 자료 제공과 상호작용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관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R 분석의 빈도분석인 워드클라우드 기법과 상관분석인 동시 출현 네트워크 (Co-Occurrence)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림2 참고).



[그림 2] 워드클라우드(좌)와 동시 출현 네트워크(우)

(2) 2차 설문: 적응 요인

2차 적응도 설문의 결과를 보면 수업 참여도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은 <표6>과 같이 수업 적응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수업 적응은 학생이 스스로의 학습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가장 높은 상관이 있고 ( $r = .764, p < .01$ ), 수업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는 오히려 상관이 없었다. 또한 기독교인 여부에 따른 집단간 평균을 비교한 Mann-Whitney 검정 결과, 유의수준 1%에서 수업 참여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업 적응 요인은 기독교인 학생과 비기독교인 학생 간 적응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다 (학습 환경 수용  $U = 279.000, p < .01$ ; 학습 필요와 의미 인식  $U = 243.000, p < .01$ ; 학습 능력 인식  $U = 315.500, p < .01$ ; 전반적 적응  $U = 248.500, p < .01$ ). 이에 수업 참여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KM0-Bartlett 검정 = .876,  $p < .01$ ), 기존 5개의 요인 중, 수업 참여도와 전반적 수업 적응 총 2개의 요인이 설문에서 제외되었으며 ( $\chi^2(20) = 80.034, p < .01$ ), 이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더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수정된 설문의 Cronbach's  $\alpha$  값은 .866으로, 7문항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최종 수업 적응도 설문은 높은 신뢰 수준을 보여주었다.

<표6> 2차 설문 요인 간 상관관계

	학습환경수용	수업필요의미	학습능력인식	수업참여도	전반적수업적응
학습환경수용	1				
수업필요의미	.742**	1			
학습능력인식	.570**	.558**	1		
수업참여도	.066	.107	.117	1	
전반적수업적응	.595**	.615**	.764**	.122	1

\*\* $p < .01$

(3) 기독교인 여부와 실제학점

기독교인 여부에 따른 실제 학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비기독교인 집단 ( $n = 11$ )을 고려하여 Mann-Whitney 비모수 검정을 한 결과, 기독교인 여부에 따른 실제 학점은 유의수

준 5%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 $U = 351.500, p < .05$ ). 즉, 실제 학기말에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높은 학점을 받았다 (표7 참고).

<표7> 기독교인 여부에 따른 실제 학점 비교

	A+	A	B+	B	C+	C	D+	D	F	총
기독교	31	15	15	18	10	7	4	0	2	102
비기독교	0	1	3	3	2	1	0	0	1	11
총	31	16	18	21	12	8	4	0	3	113

단위: 명

#### (4) 수업적응과 실제학점

위에서 수정한 수업 적응 3요인을 바탕으로 실제 학기말 성적 간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별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에 따른 유의확률이 학습 능력에 대한 인식 및 전체 평균을 제외하고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기독교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 적응과 실제 학점은 정적 상관이 있다. 즉, B+와 C+를 받은 집단을 제외하고 요인별 적응값이 높을수록 실제로 높은 학점을 받았다 (표8 참고). 이는 숫자 형식의 학점으로 상관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 $r = .287, p < .01$ ).

<표8> 수업 적응 요인별 실제 학점 비교

		학습환경수용	수업의미필요	학습능력인식	평균(표준편차)	빈도(%)
실제 학점	A+	4.35	4.38	4.11	4.10(.44)	41 (27.7)
	A	4.32	4.08	4.00	4.00(.60)	24 (16.2)
	B+	3.93	3.59	3.72	3.60(.61)	23 (15.5)
	B	4.12	4.13	3.63	3.84(.53)	27 (18.2)
	C+	4.31	4.33	3.87	3.96(.51)	15 (10.1)
	C	4.08	4.06	4.00	3.88(.26)	8 (5.4)
	D+	3.80	3.60	3.40	3.52(.30)	5 (3.4)
	D	3.00	3.00	3.00	3.00(.00)	1 (0.8)
	F	3.42	3.25	3.63	3.31(.32)	4 (2.7)
$\chi^2(df)$		98.992(56)**	91.082(56)**	48.612(48)	49.830(24)**	521.816(488)

\*\* $p < .01$

### 3. 설문 결과 피드백 효과성

학생 스스로 자신의 수업 적응 수준을 인지하고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부한 피드백의 효과성은 피드백 수령 유무에 따른 실제-예상 학점 차이를 통해 알아보았다. 예상 학점은 학기 말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학점을 의미하며, 2차 설문 당시 추가적으로 기재를 요구하여 수집된 정보이다. 학생들은 예상 학점을 기재한 2차 설문조사 후 그리고 실제

학점을 받기 전에 자신과 동료 학생들의 적응도를 비교한 설문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업 성취에 대한 수업 적응 인식의 역할을 알아볼 수 있다. 전체,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집단의 피드백 수령 유무를 모르는 결측값 각각 7명, 6명,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표9), 전체 학생과 비기독교인은 피드백 수령 유무에 따른 예상-실제 학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기독교인은 피드백 수령 유무에 따른 예상-실제 학점 차이가 있었다 ( $t(94) = 2.322, p < .05$ ). 즉, 피드백을 수령한 기독교인 학생은 수령하지 않은 기독교인 학생보다 예상보다 실제로 높은 학점을 받은 비율이 많았고, 피드백을 수령하지 않은 기독교인 학생은 피드백을 수령한 기독교인 학생보다 예상보다 실제로 낮은 학점을 받은 비율이 많았다.

<표9> 예상학점과 실제학점 차이 비교

단위: 명(%)

	전체 학생 피드백 수령		기독교인 피드백 수령		비기독교인 피드백 수령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실제학점 > 예상학점	21(14.9)	19(13.5)	17(17.7)	12(12.5)	1(10.0)	1(10.0)
실제학점 = 예상학점	20(14.2)	24(17.0)	9(9.4)	19(19.8)	3(30.0)	0(0.0)
실제학점 < 예상학점	24(17.0)	33(23.4)	14(14.6)	25(26.0)	2(20.0)	3(30.0)
총	65(46.1)	76(53.9)	40(41.7)	56(58.3)	6(60.0)	4(40.0)
	141(100.0)		96(100.0)		10(100.0)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2018년 2학기 필수 신앙 수업의 적응도 설문 응답을 분석하여 수업 적응 및 부적응 요인을 알아본 후, 수업 적응 정도와 이러한 적응을 인지하는 것이 신입생들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와 2차 설문 모두에서 기독교인 여부에 따라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즉, 기독교인 보다 비기독교인 신입생이 필수 신앙 수업에 더 잘 적응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기독교 대학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기독교인의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모든 학생에게 부여된 필수 신앙 교과를 이수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종교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학습 흥미 및 내적 동기 수준 차이 (김선정 외 2008)가 수업 적응의 차이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기독교 대학에 입학한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이 수업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른 수업 구성원 (e.g., 기독교인 학생과 교수자, 조교 등)은 필수 신앙 수업에서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소수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위한 개별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수업에 얼마나 참여하였나보다 a) 학습환경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b) 어떠한 이유로 이 수업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인식하며, c) 이 수업을 잘 이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인식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선행연구에서 높은 타당도를 보였던 수업참여도와 전반적 적응이 수업 적응 설문에서 제외된 것은 해당 요인이 1문항으로 이루어져 매우 포괄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업참여도 요인의 실제 질문은 '나는 그룹 토의 및 발표에 참여하는 것이 두렵다'였는데, 교리를 전달하는 신앙수업의 특성상 질의 응답을 제외하고 그룹 토의 및 발표를 하는 능동적인 참여의 기회가 거의 없다. 따라서 신앙 교과목 범주에서 이 질문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수업에 참여하는지 그 수준과 상관성이 낮아 확인분석 결과 요인에서 제외되었다.

셋째, 1차 설문을 통해 확인한 수업 부적응 요인은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였다. 무엇보다 수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학생들은 '배운 바를 이해하기 전에 넘어가는 것'과 '부족한 학습량'을 수업이 어려워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로 언급하였으나, '불충분한 배경지식의 양'은 기독교인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가장 큰 수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제시한 의견은 추가적인 학습자료와 상호작용의 기회 증가였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차 설문에서 확인한 수업 참여도가 수업적응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민혜리와 이희원이 (2011) 밝혀낸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로써 학생 참여적 수업 유도를 지적한 것과, 교수-학생 상호작용 측면에서 질문을 통한 지적 자극 부분을 나누어서 요구한 것과 일치한다. 즉, 강의를 이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일은 충분히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게다가 신앙 과목은 학생들의 인식과 다르게 수업을 듣기 전에 학생이 얼마나 많은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오히려 수업을 들음으로써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목이다. 그러므로 수업에서 단순하게 내용과 지식의 전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의문을 해소하거나 배운 것을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정립되는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가 자료나 상호작용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어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업 적응은 실제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독교인 여부에 따라 실제 학점에 차이가 있었다. 즉, 수업에 잘 적응할수록, 그리고 기독교인 학생이 비기독교 학생보다 높은 학점을 받았다. 게다가 적응 정도에 관한 피드백을 수령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예상보다 실제로 더 좋은 학점을 받은 비율이 많았는데 특히 이것은 기독교인 학생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점에서 적응도 피드백은 학기 종료 약 4주 전에 학생들이 남은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설문 과정에서 학기말 성적을 예상해 본 이후에 배부된 피드백은 학생 개인이 자신의 적응 정도를 인식할 뿐 아니라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예상보다 더 나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교수자가 수업에서 더 제공해주어야 하는 외적인 자원만을 고민하기 보다 이렇게 학생 스스로가 학습과 관련된 내재적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 역시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독교인 학생의 경우, 신앙 교과목에서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H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주장하는 신앙 교육 강화에 대한 근거로써 사회

에 나가기 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기반하기 때문이다 (한동대학교, 2014). 이 대학은 기독교 문화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 특수한 학습 환경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세상과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환경이 없는 일반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유은희, 2017). 이것은 기독교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축적된 지식을 가공하여 내가 어떤 이유로 남들과는 다른 목적과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타당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며, 이 때문에 신앙 교육에 내재적 동기를 분리할 수 없다.

요약하면, 위의 결과들은 필수 신앙 수업을 수강하는 모든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하여, 교수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수업 자원들 뿐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수업에 대한 정보들 (i.e., 수업 적응 정도)을 바탕으로 내재적 동기 부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학생 개인의 수업 및 대학 생활 적응에서 더 나아가 H 대학의 정체성 교육의 핵심이자 신입생 교과 과정에 집중된 필수 신앙 수업의 보다 발전된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수란 (2012). 학업성취, 교사기대 그리고 학업적응과의 관계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1), 1-24.
- 김선정, 현우식, 손호현 (2008). 비기독교인을 위한 기독교교양교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학회*, 19(19), 95-133.
- 김수연 (2012). 대학 학업 중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1학년 적응 과정 분석. *진로교육연구*, 25(3), 139-160.
- 김용래 (2000). 『교육심리학』. 서울: 문음사
- 김은혜 (2014).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 윤리적 대안. *기독교사회윤리*, 30, 7-36.
- 김정효, 허지선, 한신영 (2017).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과정 속의를 통한 신조(Platform) 구축. *기독교교육논총*, 52, 181-220.
- 민혜리, 이희원 (2011).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강의의 특성 연구. *열린교육연구*, 19(1), 57-88.
- 박혜림 (2007). 대학 교양 교육과정의 평가 준거 개발 연구. *교육과정연구*, 25, 109-132.
- 박혜림 (2015). 기독교대학의 교육목표-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신학과 실천*, 44, 359-394.
- 반상진, 조영재, 신현석, 노명순, 박민정, & 김영상 (2013).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 대책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0(4), 189-211.
- 오종현, 오보라, 김우성 (2017). 대학생들의 수업 적응도에 대한 잠재전이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7), 489-508.

- 원재순, 김진숙 (2016).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3(9), 177-205.
- 유은희 (2017). 기독교교육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출구면접: 기독교교육과 학생들이 지각하고 경험한 전공교육 과정, *신학과 실천*, 53, 459-496.
- 이하은, 오종현, 강병덕 (2016). 대학생들의 수업 적응도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한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6(10), 795-824.
- 한동대학교 (2011). *신앙교육과정 개편보고서*. 한동대학교.
- 한동대학교 (2014).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 결과 (학생 및 졸업생) 주관식*. 한동대학교.
- 한동대학교 (2016). *SPARC 개선 연구 보고서*. 한동교육개발센터.
- 한동대학교 (2018). *신입생설문조사결과보고서. 입학사정관팀*, 한동대학교.
- 한동대학교 *교육이념*, <http://www.handong.edu>. (검색일 2018.9.10).
- 한동대학교 (2019). *SPARC 개선 연구 보고서*. 한동교육개발원.
- 한윤식 (2003).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한동대학교 그 가능성과 구현 방안. *통합연구*, 16(2), 225-251.
- Baker, R. and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o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
- Conley, S., Travers, V. and Bryant, B. (2013). "Promoting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tress Management in First-Year College Students: The Benefits of Engagement in a Psychosocial Wellness Seminar."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1(2), 75-86.
- De Clercq, M., Roland, N., Brunelle, M., Galandm B. And Frenay, M. (2018). "The Delicate Balance to Adjustment: A Qualitative Approach of Student's Transition to the First Year at University." *Psychologica Belgica*, 58(1), 67-90.
- Holmes, G. and Mcelwee, G. (1995). "Total Quality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The TQM Magazine*, 7(6), 5-10.
- Salem, M., Shawtari, F., Hussain, H. and Shamsudin, M. (2018). "The Aspects of Total Quality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pcion*, 34(16), 359-368.